

EXCELUS의 언어 길라잡이(1)

-언어영역 학습 개론.

머리말.

정말 호응도가 좋아서 무척이나 놀랐습니다.좋아요가 32개나 붙고 거기에 조회수가 무려...5천이 넘어서 지금도 심장이 별렁거리네요.`그냥 누가 관심이나 가져줄까? 하지만 내가 하고 싶던 일이니까 한번 질러보자`라는 생각에 글을 쓴 건데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군요.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대한 글을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이 학습 개론은 제가 5년간 언어영역을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현역시절 4등급에서 삼수시절에 거의 고정적인 1등급을 받기까지 했던 행동들을 학습 개론이라는 거창한 말로 써 낸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언어영역에 대한 단편적인 소고입니다.이 글을 읽다보면 의외로 평범한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그래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이 글을 읽으신다면 `이게 뭐야, 별거 없잖아 속았네!`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언어영역 성적이 오르지 않아 이 글을 읽시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자신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정말 여기에 수록된 내용대로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해 오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아니 없다고 확신합니다.아마 하더라도 1주일도 못 가서 때려치우거나 혹시나 길게 몇 개월을 하더라도 하루하루 이 행위들을 확실하게,제대로 해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사람이란 존재는 생각보다 매우 보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정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해 그걸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 몸에 새겨넣기까지 정말 오래 걸립니다.여기의 내용들도 모두 제가 재수시절,6월 평가원 이후에 생각했던 내용인데 끝내 재수기간 내에 체득하지 못해 전 재수를 실패했습니다.그 뒤에 다시 삼수를 하면서 2월 14일에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하면서 이게 저의 근본 문제이며 이것을 고쳐야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했습니다.정말 귀찮았어요.하지만 이렇게 한 달을 제대로,확실하게 해 내니 3월부터 시작해 11월 대수능까지 교육청,평가원,수능,경찰대,삼군 사관학교,사설 전국/월례고사에 이르기까지 단 3번을 제외하고 전부 1등급 중 98%이상을 달성하거나 고득점을 획득했습니다.(다만 평가원은 아니네요.제가 100점을 맞는 실력은 아니고 꼭 하나씩 실수해서 6.9모평 모두 1점짜리를 틀려 이것만은 96%네요.)생각보다 언어영역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라는 게 원칙만 잘 지키면 쉬운데 원칙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하는 요령을 부리려하기에 좌절하는 것처럼 보이네요.그럼 부디 읽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목차.

1.언어영역에 대한 오해와 언어공부의 개념.

2.언어영역의 학습방향

1)1년간 공부방향 및 시기별 조언.

2)언어영역 문제에 대한 인식과 언어영역에서 독해력향상의 의미.

3)기출문제분석의 의의와 방향.

4)문학개념어의 중요성과 교재 선택의 기준.

5)틀린 문제 처리하기.-주된 오답사유와 대처방법 및 올바르게 효과적인 복습방법.

6)언어영역 학습시간.

3.언어영역에 좋은 자세 및 잡다한 고민에 대한 답변(기준은 언어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1)지문이 먼저,아니면 문제가 먼저?

2)시간 VS 정확성 그리고 시험 중 시간관리.

3)고전시가 공부-고어로,아니면 현대어로?

4)EBS와 교육청 및 사설모의고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5)이미지 트레이닝의 중요성.

4.언어영역과 논술의 연계학습.

5.언어영역과 논술 학습 시 읽으면 좋은 책들.

1.언어영역에 대한 오해와 언어영역 공부에 있어 개념의 의미.

이 글을 보게 될 여러분들은 모두 나름대로 언어 영역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흔히 언어영역을 두고 `언어영역은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혹은 `언어영역을 공부하니 안 할 때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데.` 등의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학생들은 언어영역을 보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수리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에 시간을 많이 쏟아 붓습니다.하지만 그런 태도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올바른 공부를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합니다.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공부의 모습이 제 눈에 선명하게 보이네요.무작정 문제를 다량으로 풀거나 혹은 `이 문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어.해설지가 엉터리네`하고 집어 던지셨을 경우가 태반이겠네요.거기서 좀 나아가도 단순히 정답에 대한 근거가 제시문의 여기쯤에 있다고 확인한 채 넘어갔을테고요.여러분께 묻겠습니다.....그게 정말 공부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어영역은 수리처럼 공식을 막 외우거나 외국어처럼 단어를 많이 외운다고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닙니다.(물론 수리랑 외국어를 이렇게 공부해도 패망이죠.)언어영역은 정말 섬세한 과목입니다.언어영역은 명확하게,제대로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 과목입니다.제 경험상 언어영역은 공부하는 방향만 올바르게 확립된다면 가히 폭발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면서 상당한 안정성이 보장되는 과목입니다.그렇다면 언어영역을 제대로,명확하게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언어영역 공부에 있어 개념이란 무엇인가와 직결된다고 저는 봅니다.여러분도 언어영역 공부의 개념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생각보다 막막할 것입니다.수리나 외국어 혹은 탐구영역처럼 직관적으로 안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왜냐면 언어영역 공부에 있어 개념이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하지만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저는 언어영역에 있어 개념이란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인지했는지 그 사고과정을 스스로 기억해내고 그것을 적어낸 다음 자신의 사고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수정할 줄 아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이게 언어영역에 있어 개념이자 지난 5년간 각종 교육청,사설모의,삼군 사관학교,경찰대,평가원,수능 그리고 현재 PSAT를 접하면서 제가 느낀 가장 본질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여러분은 자신이 푼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어떤 사고과정을 거치고,어떤 근거를 통해 이러한 판단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쾌하게 타인에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는 못할 겁니다.실제로 제가 과외를 하면서(고작 두 명뿐이지만.)제자들에게 `너 이 문제를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 풀었는지 나에게 설명해 봐`라고 하면 자기가 풀어놓고도 이를 복기하여 설명해 내는 녀석은 없더군요.단지 몇몇 단어만 버벅거리며 말할 뿐.자기가 어떻게 사고하는지도 스스로 인식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의 글을 읽고 이해하며,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읽고 거기에 자신의 사고과정을 끼워 맞출 수 있겠습니까?물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문제 풀 때 자신의 사고과정을 명확히 인지하며 풀고 거기에 수정까지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해내지 못하면 언어영역에 타고나지 않은 여러분은 결코 원하는 대학에 못 갈 겁니다.(특히....문과분들은요.이과야 뭐....고신대 의대처럼 언어안보는 곳도 있으니.)제발 절박해지세요.그리고 절실히 지세요.생각보다 공부는 즐겁거나 자신이 흥미를 가진다고 잘하게 되는 건 제 경험상 아니더군요.정말 자신이 절박해지고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게 될 때 진정으로 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제 삼수 경험상 그렇습니다.

2.언어영역의 학습방향.

1)시기별 공부방향.(이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작년 제 기억을 읊은 겁니다.딱히 안 봐도 되는데 읽기 귀찮으시면 3월,5월,7~8월은 읽어주세요.이 시기들이 좀 중요해서...)

슬슬 3월이 다되어 가는군요.필자의 경우 2월/15일부터 삼수시작을 했습니다.그래서 저의 실제 공부시기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적당히 수정하여 기재합니다.모두 제가 실제로 했던 일들입니다. 아래 내용은 언어영역뿐만 아니라 필자가 재수학원에 다니면서 고민했던 내용들도 좀 중요하다싶으면 넣었습니다.내용은 기출문제만 다뤘습니다.ebs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하게 될테고 학원교재도 있으실테니 거기에 각자 사정에 맞춰 조율하세요.

3월:이때쯤 수험생들은 겨울방학.혹은 수능 후 놀다가 굳어버린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바로 과거 자신의 실패경험을 모조리 떠올려서 문제점을 진단하는 겁니다.정말 이때 아니면 못해요.언제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일단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그 상황에 이른 근본원인을 찾아야합니다.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의 문제점조차 파악 못하는 겁니다.그리고 두 번째는 MOTIVATION 다시 말해 학습동기를 명확히 확립하는게 중요합니다.여기서 학습동기란 단순히 '난 서울대를 가고싶다'는 것은 안됩니다.어차피 수능은 대학에 가기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대학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고싶은 일을 하기위한 하나의 발판입니다.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시켜서,혹은 대학을 안 가면 취직이 힘들니까등의 타성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팬대를 쥐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음...약간 부끄럽지만 저의 예를 들자면 이렇네요.전 행정고시 재경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행시를 치려고 했습니다.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행시되면 권력있고 안정적인 보직에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다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기까지 하니깐요.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난 왜 공부를 하지?`라고요.그리고 상상을 해봤습니다.만약 제가 행시 재경직에 합격해 행정연수원에서 연수받고 꿈에 그리던 금감위에 출근한다고요.그리고나서.. 뭐죠? 그 뒤엔 뭘 할지자체 스스로 생각해내질 못하겠더군요.하지만 최근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정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올바르게 업무를 처리했다라면 저런 사태에 이르렀을까?`라고요.그리고 다시 제가 응시하는 과목들의 목록을 봤습니다.피셋에 경제학,행정학,행정법,재정학,회계학.이런 것들 모두 제가 5급사무관으로서 갖출 최소한의 소양입니다.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하는 일이란 생각이 들더군요.최근에는 항상 이런 마인드로 공부합니다.`나는 금감위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금융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싶다`라고요.그러니 공부도 훨씬 잘되게 되더군요.좀 더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그러니 여러분도 자신만의 학습동기를 확립하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 언어영역을 할 때 우선적으로 문학개념어를 익히고 고전시가를 학습해야 합니다.이것들은 미리 해두면 매우 편함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 대부분이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더군요.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하세요.아,그리고 국문법 잇을 뻔 했네요.이 시기에 국문법도 공부해야 합니다.안 그러면 언어학 관련 지문을 독해할 때 무척이나 괴롭습니다.특히 저처럼 경찰대 준비하실 분들은 이 시기에 정리 안하면 기회가 없어요.경찰대 어법은 수능과 달리

기본지식+각종 외래어표기법등을...외우셔야 하거든요.뒤에 가면 적당한 도서를 수록하겠습니다.아니면 인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그리고 이때는 무리하게 점수향상에 집착하지 말고 듣기부터 시작해 쓰기,어휘,어법,한자성어,비문학,문학 모든 분야의 기초를 다지세요.철사 자신이 아는 것이라도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가 없다면 그건 스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기본기가 지켜우시더라도 이때 다져놔야 그 효과가 7월까지 갑니다.그리고 언어영역 노트를 만들어야합니다.독학재수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텐데...학원에서 수업하는 것들이나 자신이 언어영역을 하면서 깨달은 점들을 노트에 기록해 두고 수능 전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이게 수능치기 1주일전부터 수능 당일까지 여러분이 볼 마무리교재가 됩니다.

4월:바뀐거 없습니다.계속 국문법,고전시가,문학개념어,한자성어등을 꾸준히 익힙니다.아마 4월까지 하시면 어느정도 체화될 겁니다.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정도로 하시면 수능날까지 계속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중도에 다시 3일정도 날 잡아 재독하셔도 좋습니다.(전 추석날 그랬습니다.집에는 가지도 못했네요...)그리고 기본기도 위와 마찬가지로 이구요.노트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 잊지마시길.그리고 이때쯤 문제풀이 양을 늘리실 거면 20세기 수능 기출을 보세요.보통 수능 기출은 최근 5개년을 추천합니다.저도 별 이견은 없지만 초창기 수능 문제를 보면 이점이 있습니다.수능 문제란게 생각보다 출제의도 자체는 굉장히 일관적입니다.옛날 문제의 경우 최근 문제보다 덜 복잡하기에 출제의도 파악이 용이합니다.물론 3월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5월:이제 이때쯤 기본기가 틀이 잡히는 것을 넘어 체화될 시기입니다.이때부터 기본적인 내용은 좀 놔두고 심화교재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아마 이때부터 학원선생님들도 심화교재 팡팡 뿌리기 시작할 겁니다.이때도 역시 기출문제를 봐야겠죠.이 시기에 20세기에 출제된 수능문제를 다 끝내세요.그리고 역대 수능,평가원 중에서 어려운 거 세 개 정도를 뽑아 진~득하게 보면서 20세기 수능을 보며 얻은 내용들을 이 문제들에 적용해보세요.전 이때 2010학년도 6,9월 평가원과 2011수능을 봤네요.아...그리고 이때쯤 1차 슬럼프가 올 시기군요. 다른 애들이 미약하게 슬럼프가 오는 게 눈에 보이던데요.각자 슬럼프 극복할 방법을 4월에 만들어 둡시다.저의 경우 양치기용 문제집을 구매하고 아무 생각없이 하루종일 문제만 풀었네요.채점은 안 했고요.그렇게 미친듯이하니 슬럼프가 싹 가시더군요.

6월:자.....이제 대망의 평가원이 있는 6월입니다.이 시기에도 6월 평가원을 치기 전까지 5월처럼 하는게 좋아요.어차피 기출 분석이란 게 한 달만에 150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그리고 6월 평가원을 응시합니다.대개 이 시기에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째로 점수가 오른 경우.정말 행복하겠죠.그러면서 '난 이제 되나보다'하고 자만하기 시작합니다.그때부터 기본기 복습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6월 문제도 잘 쳤다고 내버려두는 녀석 많더군요.그런 짓 맙시다.쉽건 어렵건 기출문제는 분석해 주는 게 예의입니다.실제로 저도 그럭저럭 잘 보긴했지만 1점짜리 틀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 다 분석했습니다.그리고 두 번째로 못 보거나 점수가 그대로인 경우.'난 안될 거야 아마...'모드에 들어갑니다.정신 차리세요.어차피 평가원은 과정일 뿐입니다.실제 수능도 아닌데 뭘 그리 좌절하나요?다만 이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과거 기출보다 현재 못 본 6월 기출문제 분석에 중점을 두세요.

7월~8월:마의 구간입니다.정말 힘든 시기에요.날씨는 덥고,6월 평가원 지나니 마음도 풀리고 공부 시작한지도 거의 4개월되는 데다가 9월 평가원조차 1~2개월이나 남았네요.늘어지다 못해 완전 소금 절인 배춧단처럼 퍼질러집니다.제 2차 슬럼프입니다.강도도 1차랑 비교가 안 되네요.저도 이 시기에 정말 슬럼프 장난 아니었네요.그렇다고 공부를 쉬고 놀러간다? 그럼 전한 마디 해드리죠.'내년에 또 봐요 ㅎㅎㅎ'라고요.이 시기에 좋은 건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캠퍼

퍼스에 가는 겁니다.저의 경우 서울에 학원을 다녔기에(부산출신이지만) 이때 처음으로 서울대를 가봤네요.오전에 공부하고나서 오후에 갔습니다.가서 학식도 먹어봤습니다.그리고 교정을 거닐면서 내년의 제 모습을 상상했구요.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나의 꿈을 어떻게 펼칠지 고민도 해봤고요.그렇게 저녁까지 있다가 돌아와서 공부하고 12시에 잤던게 기억납니다.그 다음날부터 공부가 잘 되더군요.8월에도 한 번 더 갔습니다.지방 학생들은....알아서 하세요.다만 지방학생들은 다녀오면 패널티가 심해서;; 그 외에 슬럼프 극복할 방안들 만드세요.아,그리고 이 시기에 경찰대랑 삼군 사관학교 입시도 있네요.실력 테스트하러 치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합격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라면 떨어지더라도 무시하고 수능을 목표로 하세요.떨어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2개월에 걸쳐 21세기 수능 문제 중 나머지를 처리합니다.예비평가 문제는 본인 선택에 맡기겠습니다.예비 평가 기출은 수록이 된 책이 없어서 잘 모르시던데 아마...2002년도 쯤인가 출제된 걸로 압니다.이건 딱히 안 풀어도 상관없겠네요.

9월:자 평가원 시험이 또다시 코 앞으로 왔군요.이 시기쯤되면 평가원에 신경쓰여서 자동으로 슬럼프 사라집니다.역시 9월 모평 전까지는 21세기 기출문제 풀이를 해주세요.그리고 9월 모평을 치면 역시 6월과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6월 내용 참고하셔서 그대로 해주세요.

10월:이때쯤 되면 풀 거리가 슬슬 고갈 되갑니다.기출문제도 많이 다루어서 지겨울 때도 났고요.그렇다면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보길 추천합니다.경찰대는...지문 스타일이 수능과는 조금 다른지라 그렇고요.물론 문제의 질은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사관학교도 문제 질이 높습니다.평가원이상 수능미만이라 보면 됩니다.이건 전체 볼 거 없이 최근 4개년치만 보세요.다만 주의할 게..작년 문제 중 정오논란이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어떻게 났는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웬만하면 피하세요.저도 틀렸는데...이 문제만은 좀 그렇습니다.나머진 문제 없습니다.

11월:자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네요.보통 수능이 11월 둘째 주인 경우가 많죠.그럼 대략 잡아서 남은 기간은 10~12일 정도.이때는 새로운 문제를 풀지 않는 게 좋다는 건 모두가 잘 알리라 믿습니다.그렇다면 이 긴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야 정상이겠죠.헛되이 보내면 나중에 감각이 다 망가집니다.차라리 그럴 바에야 기출 문제 중 올해 친 6,9월 평가원을 3회독하세요.특히 본인이 걸린 오류나 함정이 있다면 당해연도 수능에 다시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그렇기에 함정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당해연도 평가원 문제를 보며 자신의 사고에 있어 관성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이거 하다보면 금방 시간가요.생각보다 잘 안 고쳐잡니다.저도 이걸 못 고쳐서 수능날 하나 틀렸네요.그리고 3월부터 만드신 노트를 이때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아 쓰다보니 정말 길었네요.나름대로 제 경험을 녹여 낸 글이라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3개월 전의 일을 하루만에 다 짜내려니 생각보다 힘드네요;;

2).언어영역 시험문제를 인지(認知)한다는 것과 비문학에서 독해력의 의미.

언어영역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언어영역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올바르게 풀 수가 있기 때문이죠.그럼 언어영역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언어영역 시험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언어영역 시험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바로

<제시문>

<문두>

<보기>

<선택지>

라고 전 생각합니다.그럼 이것들이 언어영역 시험문제의 구성요소라면 이것들을 어떻게 인지하는 게 좋을까요?당연히 중요한 순서대로겠죠.이 모든 구성요소들이 모두 동등한 중요도를 지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넘어가기전 잠시 생각해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만큼 제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위계질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군요.

제시문=문두>보기>선택지-로 전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바로 언어영역 시험의 평가목적 때문입니다. 언어영역도 분명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한 항목으로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은 합리성을 기본으로 합니다.따라서 시험은 평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상을 테스트하려는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어영역 시험을 하는 목적, 즉 대학교재를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교재를 대신해 제시문을 통해 이해능력을 테스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시문만 제대로,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면 90%는 다 된거나 다름없습니다.정말 문제는 제시문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그것이 언어영역 시험의 대전제입니다.그러나 제시문만 이해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제시문을 제대로,명확하게 이해하더라도 문제에서 정답의 기준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결코 맞출 수가 없습니다.그렇기에 문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정말 문두를 제대로,명확하게 읽어 정답의 기준을 잡아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수능 점수에서 각 영역별로 작게는 5점 많게는 10점 이상을 결정합니다.생각해 보세요.이 정도로 점수가 오르면 여러분이 희망하는 곳에 갈 점수 확보가 됩니다.따라서 문두는 대충 읽을 게 아니라 주의 깊게,명확하게 읽어내야 합니다.이게 언어영역 시험의 소전제가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보기>와 선택지가 남았네요.<보기>는 제가 볼 때는 대략 두 가지 성향을 가집니다. 첫째는 종속형입니다. <보기>자체에 실린 내용이 제시문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두번째가 독립형이네요.독립형은 제시문과 공유점은 있지만 별도로 독해를 통해 추가적으로 이해해야하는 <보기>를 말합니다.이게 좀...상당히 귀찮은 <보기>죠.

선택지의 경우 제시문,문두,보기에 모두 부합하는 녀석을 선택하면 그게 그냥 답입니다.이게 언어영역 시험의 결론이 되겠네요.따라서 이런 식으로 언어영역 문제를 인지하며 풀면 아마 좀 더 정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삼단 논법 형식으로 써봤네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에서 독해력이 무엇인지를 말해보려 합니다.흔히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독해력이 중요하다고들 하죠.그럼 비문학에서 독해력이 높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 비문학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 높다는 말은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높이려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전 우선 '지문을 이해했다' 혹은 '보기를 이해했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가르치는 녀석 중에서 1등급인 녀석이 있습니다. (고2입니다.) 꽤 글을 잘 읽는 학생입니다. 제가 언젠가 과외하다가 궁금해서 갑자기 특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00아 글을 이해한다는 게 뭘까?' 녀석이 잠시 고민하더군요. 그리고는 대답하길 '글에 나온 정보를 자신이 이해하기 가장 편한 형태로 재배열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요. 듣고 고개를 저절로 끄덕였습니다. 역시 이 학생은 항상 1등급 받을 자격이 있더군요. 글을 이해한다는 것을 이정도로 명확하게 인식만 해도 언어영역 1등급은 충분히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전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말한 이해하기 가장 편한 형태로 정보를 재배열한다는 표현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재배열입니다. 그럼 재배열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전 하나의 글을 읽을 때 항상 개념어라는 것을 염두해 둡니다. 개념어란 해당 글을 읽을 때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상이나 현상 등이 제가 정의하는 개념어입니다. 보통 하나의 글을 읽으면 이런 개념어들이 대부분 두 개 이상이나옵니다. 그리고 개념어들간의 속성과 관계가 나옵니다. '속성과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글을 자신이 이해하기 가장 편한 형태로 재배열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동양인은 인지과정상 속성을 중시하는 서양인과 달리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렇기에 언어영역 문제의 정답을 보면 관계를 문제화 한 게 발에 채입니다. 항상 관계와 속성에 주목해 글을 재배열하여 읽는다면 제시문-보기의 이해도가 부족해 틀리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3) 기출문제 분석의 의의와 비문학 독해의 핵심.

기출문제를 분석을 분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들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며 특히 언어영역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세론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기출 분석이 왜 중요한지를 물으면 학생들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냥 주위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세뇌되어 중요하다고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죠.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언어영역은 판단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죠? 당연히지만 판단을 위한 기준이 있어야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자신만의 판단 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 주관성이라 표현하죠. 그런 점에서 수능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분명 판단능력을 요구하는 데 시험이기에 객관성도 함께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은 제시문이나 문두 그리고 <보기>를 최대한 명확하게 구성하여 판단능력 시험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출제자들께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데 우리가 자신만의 판단 준거를 가지고 멋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에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출제자가 제시해 놓은 판단 준거와 응시자의 판단 준거를 일치시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됐군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독해에서 중요한 것들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비문학을 읽는 잘 읽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 하에 선정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자부합니다.

-첫 문단을 통한 글의 예측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능을 포함한 모든 시험은 모두 기본적으로 잘 쓴 글들입니다.제가 생각하는 잘 쓴 글들이란 개요가 잘 짜인 글들입니다. 이런 글들은 모두 첫 문단에서 다음 글이 어떻게 전개 될 지를 암시합니다.따라서 기출문제의 지문을 읽을 때 항상 첫 문단에서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암시하는 부분을 주의깊게 읽고 인식하는 연습을 하셔야합니다.정말 예상하고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독해 및 이해속도는 2배이상 차이납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개념어란 것을 강조합니다.바로 해당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상이나 화제,현상등을 총칭하는 거죠.이런 개념어들은 제시문에서 앞으로 내용을 전개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흘려 읽은 채 자신의 판단기준에 근거해 개념어를 해석하여 문제를 푼다.그러니까 출제자의 판단기준과 어긋나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제발 개념어는 거의 외울 정도로 집중해서 주의 깊게 읽어야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서 읽자.(=문제점과 해결책 파악)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어떤 사건을 파악할 때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특히 이 과정에서 부수적인 원인과 결과 보다는 근본 원인과 최종 결과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그게 제시문의 필자가 글을 쓴 이유와 직결되기에 이를 알아야 글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그리고 이 구조는 흔히 신문 사설이나 오피니언쪽에서 문제점(원인)->해결책(결과=대안)의 형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이런 부류의 제시문도 역시 원인-결과를 읽듯이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과정-순서의 파악(=mechanism 파악)

과학이나 기술 지문을 읽다보면 이런 것들은 어떤 기계장치나 현상의 구조를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따라서 이런 글을 이해했다는 것을 출제자에게 보여주려면 우리는 이런 글들을 읽고 순서와 과정을 파악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팁으로 전 이런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독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간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전 이렇게 읽습니다.`이산화탄소나 메탄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간다`하고 이런 식으로 글자위에 화살표를 하며 읽습니다.그러면 혹시라도 지문을 다시 찾아 읽을 때 금방 그 과정과 순서가 보이죠^^

-관점 및 근거와 판단을 읽자.

만약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는 글을 우리가 읽었다고 칩시다.그리고 이를 출제자가 제시문으로 선택해서 문제를 구성할 때,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려면 당연히 필자의 관점, 그리고 관점에 따라 필자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 지를 알고있나 보려고 할겁니다.

-그래프를 독해할 때 주의.

수능에는 정말 다양한 지문이 나옵니다. 특히 경제나 통계 등의 분야를 다루는 글이면 꼭 빠지지 않고 그래프가 나오죠. 하지만 생각보다 수험생들은 그래프, 더 나아가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료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독해가 가능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수능에서는 어렵게 나와봤자 그래프 독해 정도입니다. 그래프를 읽을 때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x축 y축이 뭘 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율에 따른 수출량의 변화'를 제시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x는 환율이고 y는 수출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풀어야 합니다.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귀의 소리와 관련된 지문에서 제가 x축을 다른 걸로 착각하고 풀어서 틀렸습니다. 항상 비교를 할려면 비교대상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x와 y의 관계를 제대로 읽으세요. 보통 함수를 보면 $y=f(x)$ 라고 흔히 표기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x라는 독립변수가 f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y라는 종속변수를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말해

f

x-----> y라는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프 독해 시 이 구조를 기억하세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의제기를 하실까봐 각주를 드립니다. 그래프를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라고 말 할 수가 있는 근거는 우리가 보는 2차원 평면 그래프는 여건불변의 가정하에 그렸기 때문입니다. y라는 현상은 x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도출됩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다 그리려면 최소 2차원~최대 n차원에 이르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4차원 이상은 그리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변수는 불변한다고 가정하고 오직 한 변수(x)에 따른 현상(y)을 표기하는 데 이를 여건불변의 가정이라 합니다. 이때 x를 그래프에 포함 된 것이므로 내생변수, 그 외의 변수를 외생변수라 하죠. 내생변수가 변하면 그래프 위의 점이 곡선상 이동을 하고 외생변수가 변하면 곡선 그 자체가 이동합니다. 경제학하시는 분들은 수요-공급 그래프에서 공급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곡선상 이동, 구매력의 증대에 따른 그래프의 이동을 곡선 자체의 이동임을 예로서 알고 있겠네요.)

-반정식, 부등식, 밴 다이어그램등을 이용해 독해하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원자핵 모형에 의하면 한 원자의 원자번호는 그 원자의 양성자 개수와 같다. 원자가 갖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값을 원자의 원자량이라고 한다.'

읽어도 바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를 방정식으로 고치면 어떨까요?

원자번호=양성자 개수/양성자 개수+중성자 개수=원자의 원자량. 이라고 독해시 핵심단어를 줄 곳고 그 사이에 방-부등식 기호를 쓴다면 설사 잊어서 다시 읽는다 해도 빠르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과거 경찰대 기출문제 중에 아마 09년도 기출로 기억하는데 문제 중에 '다음 용어들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하고 밴 다이어그램을 내놓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 밴 다이어그램을 그려 용어들 간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 시각화해서 문제를 푹니다. 저는 지금도 독해하는 와중에 가능하다 싶으면 그리고 문제를 푹니다. 이럴 경우 단순히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영역간의 경계를 허뭍시다. 특히 수리와 언어의 개념은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스스로 여러 가지를 개발해 보세요.

4)문학개념어의 중요성.

원래는 문학작품 독해에 대한 소고 및 문학작품정리라는 것을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하지만...일단 문학작품 독해의 경우 제가 과외를 할 때 빼고는 거의 접하지도 않고 거기에 종류별로 일일이 다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거기에 제가 치는 PSAT와도 인연이 없다보니 과외할 수준으로만 하고있지,개론서를 쓸 정도로 달인도 아니구요.그래서 괜히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줄까봐 폐기합니다.대신에 문학에서 문학작품 독해와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학개념어라는 것에 대해 언급하려고 합니다.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3~4월에 걸쳐 탄탄하게 정리해야하기도 하구요.문학개념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문학관련 문제에서 선택지에 언급되는 용어들을 말하는 겁니다.예를 들면 서술자의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이 있겠네요.대부분의 수험생들,특히 재수이상쯤 가면 대략이나마 선택지가 무슨 의미인지 짐작은 합니다.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작품에서 이 부분이다라고 정확하게 짚어내는 학생은 드뭅니다.바로 용어를 모호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그렇다면 올바르게 정답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언어영역의 대전제인 제시문과 문두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기>를 명확하게 이해할 지라도 결론적으로 선택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판단 못하면 오답으로 갈 수밖에 없죠.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던 책으로 수강하던 문학개념어 공부는 꼭 하셔야합니다.그리고 이를 토대로 작품하나를 놓고 표현법을 있는대로 다 찾아내는 연습도 해보세요.매일 한 작품씩만 해보시면 됩니다.그럼 4개월 정도 지나서 작품을 보기만해도 이 작품에서 어떤 선지가 나올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다만....책이건 강의건 문학개념어의 정의만 읊어주는 건 피하세요.그것보단 차라리 기출문제를 예로 들며 이를 통해 문학용어를 설명해나가는 책이 좋습니다.

5)틀린 문제 처리하기 및 올바르게 효과적인 복습.

언어영역을 틀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더군요.그래서 언어영역의 구성요소 인지오류와 관련해 틀리는 케이스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전 이런 식으로 틀린 경우를 생각하고 이에 따라 인지과정을 고쳐나갔습니다.대표적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1)오독.

오독을 해서 틀리는 경우, 정말 은근히 많습니다.제시문에서 어미를 잘못 읽었다던지 문두에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걸로 읽는 등 오독에 의한 성적하락은 전 과목에서 나타납니다.저도 지겹도록 겪었습니다....정말 5년간 오독해서 틀리지 않았던 해가 없더군요.그래서 나름 고민도 많이 했는데...결론은 천천히,차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읽자는 것이었습니다.(대단한 거 기대한 분들겐 죄송합니다)근데 이건 어쩔수 없는 게 오독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시간이 촉박하거나 어려워서 당황하는 등 심리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군요.그렇기에 그렇다 싶으면 차라리 눈감고 30초간 아무 생각마세요.2012수능때도 6번에서 막혀(혈..)이렇게 했더니 진정되고 잘 풀리더군요.제시문,보기,선택지 오독은 이렇게 피하시고 문두 오독을 할 경우에는 O X를 쳐주세요.그러면 발문이 명확하게 인지될 겁니다.

(2)이해도 부족.

오독 못지않은,아니 오히려 오독을 뛰어넘는 언어영역계 영원한 오답사유의 챔피언이네요.이건 제시문-보기와 문두 그리고 선택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제시문-보기에 대한 이해도 부족은 위의 독해력향상 편에서 언급한 내용을 준용합니다.그리고 문두의 경우 정답의 기준을 풀고나서 문두 옆에 일일이 필기를 하세요.그러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선택지의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는 특히 부정표현이 많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푸는 상황판단의 선택지 중에 `카드의 월간 사용잔액이 회원 본인의 책임한도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사용액 중 월간 사용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뭔 말인지 지금도 헷갈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문에 이중으로 부정표현 쓰거나 하면 이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문장을 많이 읽어 대처능력을 길러보세요. 저야 뭐 이런 문장 모아놓고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고치는 방법도 연구했지만... 공개는 못하겠네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문장들을 눈에 띄는 대로 모아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해할지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복습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복습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던 게 `답이 기억나서 못하겠다`는 해괴망측한 말입니다. 우리가 복습을 하는 이유는 답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지 과정을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습을 할 때는 이전에 기록해둔 자신의 사고과정과 복습할 때 매 번 새로 풀고 다시 적은 사고과정을 비교하면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게 진정한 언어영역 복습입니다. 이 말은 바둑이나 체스를 자주 두시는 분들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복기라고 합니다. (그냥 여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공부할 때 체스나 바둑 같은 취미를 만들면 좋습니다. 친구와 하기에 좋고 게임이나 만화 같은 것보다 훨씬 낫더군요.)

6). 언어영역 학습시간.

언어영역이 수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꽤 큼니다. 바로 제 1교시이기 때문이죠. 1교시를 망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뒤 이어 망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언어영역은 되도록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서 학습해야 합니다. 특히 오전 7~10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의 경우 종합학원에 다닐 때 오전 7시에 학원에 와서 문학 중 운문과 산문을 한 세트씩, 비문학을 두 세트씩 해서 총 4세트를 시간재며 풀고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쉬는 시간에 제시문, 문두, 보기, 선택지 정/오 꼬는 방법을 모두 연구했고요. 점심 먹기 전 까지 쭉 그랬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면 못 칠 래야 못 칠 수가 없죠. 아직 안 익숙하신 분들은 문학, 비문학 하나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쓰기, 어휘, 어법은 주말에만 해도 충분합니다. 주말에는 7~10시까지 풀타임으로 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3. 언어 영역에 있어 좋은 자세 및 잡다한 고민에 대한 답변.

1) 문제를 먼저 볼까요, 지문을 먼저 볼까요?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기도 하고, 지문을 먼저 보기도 하고, 지문과 문제를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했죠. 5년간 제가 공부하며 느낀 결론은 지문을 먼저 보라는 쪽입니다. 이게 권장 사항입니다. 문제를 먼저보고 지문을 봐도 어차피 문제를 다시 읽어야 하기에 시간낭비, 거기에 지문과 문제를 왕복할 경우 집중력있는 독해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에 전 지문을 먼저 보길 권하죠. 다만 주의하실 게 지문에서 문제를 이해한답시고 구체적인 수치 같은 세부사항까지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머릿속에 우겨넣어도 기억도 모호하고 헷갈려요. 그런 건 간략하게 지문에 그 부분을 ()로 묶어놓고 넘어

간 뒤에 해당 문제를 풀 때 필요하면 읽는 방식이 차라리 실전적입니다.

2)시간 VS 정확성,그리고 시험 중 시간관리.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그건 독해속도가 느린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기에 그런 것입니다.항상 1등급 받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생각보다 독해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제시문 다 읽는 데 한 2분정도 걸립니다.하지만 2분 내에 4문제를 다 풀어버리죠.결론은 정확성문제입니다.정확성이 부족하기에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그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이 생기고 이게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정신적 피로도 높이고요.그렇기에 속독이니 뭐니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제시문과 보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두에서 정확히 정답의 기준을 찾는 것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처음에는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숙련도가 쌓이면 그야말로 광속으로 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중 시간관리에 대해 언급하려 합니다.보통 기준 시점이란 게 있어요.예를 들어 9시 정각까지 쓰기,어휘,어법은 다 풀어야해 같은..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실제로 수능에서 쓰기,어휘,어법이 어렵게 출제된 적도 없고요.하지만 9시까지 이것들을 다 못풀어도 당황마시기 바랍니다.오히려 이런 거에 집착하면 시험장에서 당황해 멘붕당하는 사태가 옵니다.어차피 80분안에 50문제 다 풀면 되는 겁니다.그리고 제가 쓰던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별건 아니고 아날로그 시계를 보통 수능시험장에 많이 들고 가실텐데...분침을 조절해 놓는 겁니다.다시 말해 정확한 시간보다 10분정도 빠르게 해놓는 거죠.이게 뭔가 싶기도 할텐데 이거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시험치기 전에는 10분 빠르게 한 것을 인지합니다.그런데 막상 시험을 치다보면 문제풀이에 몰두하느라 이 사실을 떠올리지 못하고 표기된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그러면 시간이 조금 모자라다 싶어 순간적인 집중력이 높아집니다.따라서 제시문/보기/문두를 이해하는 속도도 높아지더군요.게다가 정확하게 마킹할 시간도 별게 되니 마킹 실수로 점수를 깎는 일도 없고요.지금도 PSAT를 칠 때 애용합니다 ^^

3)고전시가 공부-고어로,아님 현대어로?

고민하는 수험생들 많을 겁니다.근데 저같은 경우는 고어를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까지 포함해 고전시를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왜냐하면 제가 피해자였거든요.아마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로 기억합니다.우리 정철씨의 관동별곡이 나왔죠.고어였습니다.그래서 해석을 못한 당시 수험생들이 여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대거 오답을 냈죠.출제위원들께서는 교과서에 실린 고전시가는 현대어 번역쯤은 해줘야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정규 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고전시가 중 교과서 수록작품은 반드시 고어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수능에 그렇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4)EBS,교육청,사설 모의고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재수 이상이면 사설 모의고사를,현역이면 교육청을 보실테고 공통적으로 EBS도 많이 접하실 게 분명합니다.분명 이것들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에 비해 그 질이 떨어집니다.그래서 그런지 수험생들은 이것들을 풀면서 틀릴 경우 문제가 오류가 있다고 매도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알고보면 교육청 사설 전국모의고사 EBS 모두 문제 내신 분들을 보면 전-현직 수능 검토위원이거나 출제위원이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평가원 출제 문제랑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아무래도 출제만 하고 정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그렇다고 이런 문제들을 시간내서 푸는 데 그냥 버리긴 아깝습니다.그래서 필자의 경우 필자가 푼 EBS,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조금씩 시간내서 옥석을

가려냈습니다.그리고 안 좋은 문제를 푼 경우에는 당연히 쳐다도 안보고 좋은 문제를 틀린 경우에는 이를 반성의 기회로 삼았습니다.아마 혼자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저야 내공이 있으니 혼자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힘들거예요.그렇기에 복습을 위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실 경우 이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고 좋은 문제는 귀감으로 삼아야할 것입니다.거듭 말하지만 나쁜 문제는 분명히 안 좋습니다.하지만 한 회에 하나정도는 평가원 수준으로 좋은 문제들이 있습니다.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하세요.그래야 여러분이 이것들을 풀며 보낸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는 겁니다.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정 시간이 안 나시면 기출로 때우면서 EBS만이라도 봐주세요.EBS는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요즘은 너무 심해서....어쩔 수 없이 봐야합니다.저도 EBS는 싫지만 이게 수험생에게 효율적이기에 말하는 겁니다.구체적으로 덧붙이자면 EBS를 볼 때 절대 지문을 편식하지 마세요.나올 거 안 나올거 가려 공부하면 시험장에서 안 공부한 게 나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그리고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그 많은 지문을 어떻게 암기합니까? 차라리 모든 지문을 3회독 정도하여 수능 날 낯설음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만드는 게 좋습니다.다만 본인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싶은 비문학 제시문과 운문 제시문은 여러 번 분석하세요.이때도 암기는 안 됩니다.어차피 수능 출제할 때 변형시킵니다.양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나눠서 하면 생각보다 분량이 적습니다.외국어 영역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전 그렇게 했습니다.아 그리고

절대 변형 문제는 풀지 마십시오.하면 그 순간 내년에 또 하게 되리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언제나 기본에 충실해야지 알팍한 변형 문제를 풀고 마음의 위안을 얻지 마세요.

5)이미지 트레이닝의 중요성.

여러분은 모의고사라는 것을 봅니다.모의고사를 보는 의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째로 자신의 약점파악,둘째로 수능 시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심리적 작용입니다.따라서 여러분은 모의고사를 칠 때 절대 그냥 쳐서는 안 됩니다.항상 모의고사를 칠 때 마다 수능시험장에서 시험치는 행위를 재현해야합니다.이를 위해 하는 게 이미지 트레이닝이죠.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수능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지고 시험에 대한 울렁증이나 지나친 긴장감이 줄어들습니다.저도 새가슴이었는데 이미지 트레이닝 덕을 매우 많이 봤습니다.구체적인 순서는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죠.실제로 이 행위는 3월부터 시작해 11월 대수능 직전 모의고사까지 총 15회에 걸친 모의고사에서 빠짐없이 했던 일입니다.일단 시험 전날부터 시작합니다.저녁 10시에 실제로 푹 잡니다.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그 뒤에 씻고 난 뒤 가벼운 몸 풀기를 합니다. 7시30분이 되면 밥을 먹습니다.그리고 시험장에 간다는 마음으로 학원을 갑니다.도착하면 잠시 2분간 가만히 있으면서 움직이느라 산만해진 심신을 진정시킵니다.그리고 노트를 펴고 가볍게 시험치기 10분 전까지 언어영역을 전반적으로 복기합니다.그리고 시험에 응시합니다.그리고 다시 시험뒤에 시작 10분 전까지 수리영역 노트를 보고 또 시험치고.그리고 점심식사한 뒤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외국어 노트를 펴서 시작 10분 전까지 보고, 응시하고 또 응시 10분 전까지 사탐 훑고 응시합니다.그리고 다시 제2외국어 노트를 10분 전까지 보고 응시합니다.이 과정에서 시험 중에 답안지 마킹까지 다 짜는 것도 합니다.이렇게 시험을 15번 보고나면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절대 안 울렁거립니다.제가 시험 울렁증이 있었는데 2012수능을 치면서 긴장을 너무 안 해서 오히려 탈일 정도였습니다.

4. 언어영역과 논술의 연계학습.

대부분 학생들은 논술과 언어영역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어영역을 공부할 때 방법만 잘 정하면 논술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언어공부를 하며 논술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고안해낸 간단한 팁 같은 겁니다.

우선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원이나 강사분들은 구조독해를 선호하시거나 언어영역 지문을 유형별로 나누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언어영역을 목록화하여 공부할 경우 그 목록에 얽매어서 거기에 벗어나는 지문이 출제되면 제대로 독해를 못해 냅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강사분이 비00듀에 있네요. (누군지는 말 안하겠습니다. 제가 재수시절 그 선생님 인강을 따라가다가 정확하게 수능을 말아 드셨습니다. 제발 목록화해서 안 가르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구조독해가 나쁘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독해 하시는 분들 보면 독해를 하며 문제를 풀 때 구조를 시각화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 풀고 지문을 정리할 때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문제 다 풀고 지문 정리하는 거면 차라리 개요를 작성하는 게 낫겠다.' 라고요. 어차피 여러분, 특히 문과생분들은 대학교가면 글 쓸 일이 엄청 많습니다. 스스로 글 쓸 때 개요도 작성해야하고 다른 사람 글을 읽을 때도 개요화해서 읽으면 글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차피 개요작성이나 시각적 구조화나 똑같아요. 단지 글이나 아님 좀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그림이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글을 써야하는 점도 감안하면 읽은 제시문을 개요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특히 서울대 논술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하세요. 처음에는 무척 힘든데 숙달되면 읽으면서 그 글의 개요를 짜게 되는 날도 올 겁니다. 전 아직 그 경지가 아니네요. 역시 난 평범한 사람인가...

그리고 언어영역으로 할 수 있는 논술공부는 요약이 있네요. 수능 제시문 보다보면 논술제시문에 적합한 것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 걸로 요약 연습을 해보세요. 제 경험상 수능지문 요약은 150~200자면 다 요약됩니다. 거기에 요약을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언어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적 이해, 즉 지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도 커집니다.

5. 언어영역과 논술공부에 좋은 책들.

1) 글쓰기를 위한 4천만의 국어책-이재성 저.

현재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글쓰기 교육과 토론을 맡고 계신 이재성 교수님의 글쓰기 책입니다. 만화를 통해 국어문법의 특성을 매우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거기에 문장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는 문장을 쓸 수 가 있는지를 국어문법과 관련해 제시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도 보는 책인데 한 번 사면 평생 들고 다니게 될 겁니다.

2) 개념어사전-남경태 저.

남경태씨의 개념어사전은 논술가에서 꽤 유명한 책이죠. 여러가지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적인 용어들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써내려간 책입니다. 서울대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은 하루에 한 단어씩 읽고 한 시간씩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써보세요. 여러 학문적 용어에 대한 깊이있는 사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3) 통계의 미학-최제호 저.

통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논술에서도 매우 많이 등장하죠. 연세대와 서울대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자료영역을 잘 읽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기본

적으로 통계자료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책은 맨큐의 경제학처럼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다소 귀납적인 서술을 택하기에 읽기에는 편하지만 일고나서 내용이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그렇기에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읽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예시를 읽는 연역적인 독해를 하세요. 덧붙여 말하면.... 대학오시면 되도록 연역적으로 쓰인 책을 읽기 바랍니다. 귀납적인 책은 별로 안 좋아요. 그건 일반인들 읽기 편하라고 한 겁니다. 뭐든지 체계적으로 학문을 하고 싶다면 연역적 서술체계를 가진 책이 좋습니다. 실제로 경제학 책을 볼 때 전 맨큐는 기피합니다. 이준구 교수님 책이 좋더군요.

후기.

후..... 정말 길었습니다. 정확하게 2/26일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2/27일 6시 20분에 끝났네요. 거의 9시간동안 잠도 안 자고 썼더니 머리가 어질어질 합니다. 일단 대충이나마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주저리주저리 적어봤네요. 제가 좀 글을 못 쓰는 지라 잘 읽고 이해했는가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 글은 거듭 말하지만 5년간 언어영역을 공부하며 고민하거나 혹은 주위에서 하는 대표적인 고민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많으실 텐데... 나머진 알아서 스스로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기서 대략적인 뼈대나 이정표는 세워 드렸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알려드렸으면 거기까지 걸어가건, 자전거를 타건, 자동차를 타건 모두 여러분의 여건에 달렸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길 바랍니다.